

# 세계 올린 '恨의 정서'... 곳곳서 '역사 바로잡기'

“일제시대 아픈 한 번에 느껴져”  
김치 등 고유문화에 관심 급증  
반크, 6개 언어로 세계에 홍보

‘역사의 아픔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설움.’

4월 28일 막을 내린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라는 질곡의 세월을 살아낸 주인공 선자, 그리고 4대에 걸친 ‘자이니치’(在日·재일 한국인)의 수난사를 그리며 세계적 시선을 끌었다. 원작자이자 미주 한인 1.5세대인 이민진 작가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공동 연출자 코코나다·저스틴 전 감독, 각본을 쓴 수 휴 총괄프로듀서, 테라사 강 로우 책임프로듀서 등 한국계 미국인 제작진과 윤여정·이민호·김민하 등 한국 배우들이 힘을 모은 드라마답게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녹여내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제작진은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아픔을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경계인과 이주민의 설움으로까지 이야기를 확장했다.

드라마의 작품성에 외신들은 극찬했다. 제작진은 이에 힘입어 시즌2를 제작하기로 했다.

### ● 전 세계인이 공감한 ‘恨(恨)의 정서’

‘파친코’는 번역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인 특유의 ‘한’의 정서를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 휴 총괄 프로듀서는 “한국의 정서는 일제강점기에 억지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세대가 겪었던 트라우마”라며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을 그리며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주인공 선자(김민하)가 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

이를 ‘이주민의 정체성’ 문제로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해외 누리꾼은 조선인 이주민을 가득 배운 배 안에서 ‘출항가’를 부르다 일본인 권력자들의 눈앞에서 자결하는 여가수의 이야기가 담긴 4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한국인의 한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극찬했다. 한국·프랑스 문화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프렌치 호퍼’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한’이라는 정서가 한 번에 이해되는 에피소드였다”고 밝혔다.

### ● 한국문화까지 재조명

해외 유통 매체들은 ‘파친코’에 등장한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로 또 다른 관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문화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외신 기사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복의 진화는 한국 역사를 들여다보는 렌즈”라며 ‘파친코’에 등장한 한복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최대 음식 전문 매체인 이터(EATER)는 “‘파친코’는 완성도 높은 한국의 옛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쌀밥과 김치 등 한식에 주목했다. 수 휴 총괄프로듀서와 앨런 프룬트 소품 책임자는 의복과 음식을 단순 소품이 아닌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위한 디테일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 ● 역사바로잡기 움직임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반일을 위한 날조 드라마”라는 일부 일본 누리꾼들의 비난에도 뉴욕타임스, 포브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조선인 학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는 기사를 내며 한국 역사에 관심을 드러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전 세계의 교실에 한국을 소개한다’(Bring Korea to the World Classroom)는 웹사이트를 영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작해 역사 알리기에 나섰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성동일·김혜수·정유미...예능 속 배우들의 반전 매력 기대해!

성동일, ‘이번주도 잘부탁해’ 진행 전국의 다양한 전통주·안주 소개 김혜수, tvN ‘어쩌다 사장2’ 등장 마트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서 정유미는 ‘미노이의...’ 시즌3 출연



배우 성동일, 김혜수, 정유미(왼쪽부터) 등 스크린 스타들이 연이어 예능 콘텐츠에 출연해 친근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제공 | ENA채널·tvN·AOMG 공식 유튜브 채널

성동일, 김혜수, 정유미 등 배우들이 잇따라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저마다 취미나 인연을 따라 예능 콘텐츠에 출연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동일은 절친한 동료 고창석과 함께 새 예능프로그램 ‘이번주도 잘부탁해’를 내놓는다. ENA채널과 tvN STORY가 공동 제작해 2일부터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30여 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수집해온 다양한 전통주와 안주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출연자 섭외에도 힘을 보탠다. 실제 ‘술친구’인 고창석을 적극 추천해 공동 진행자로 나서게 됐다. 배우 권상우, 가수 비 등 연예계 절친들도 섭외됐다. 김혜수는 5일부터 tvN ‘어쩌다 사장2’에 등장한다. 연예계 동료로서 오랜 우정

을 나뉜 차태현과 조인성을 위해 이들이 임시 운영하는 마트의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선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차태현에게 연신 “왜?”라고 묻는 모습이 담긴

예고편으로 벌써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영상은 유튜브 공개 이틀 만인 1일 100만 조회수와 700여개 댓글을 모았다. 시청자들은 “김혜수가 이렇게 귀여운지 몰랐다”며 그의 반전 매력에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유미는 지난달 30일 유튜브로 공개된 예능 콘텐츠 ‘미노이의 요리조리’ 시즌3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최근 영화 ‘원더랜드’, ‘잡’ 등을 연이어 촬영하며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콘텐츠 애청자였는데 시즌3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출연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행자인 가수 미노이의 요리를 먹으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해야 하는 콘셉트도 충실히 소화했다. 덕분에 콘텐트는 공개 이틀 만에 70만 뷰를 훌쩍 넘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곽동연, 이쯤되면 ‘빌런’ 끝판왕

티빙 드라마 ‘괴이’서 존재감 과시 유튜브 선공개 영상 12만 뷰 돌파 작년 ‘빈센조’ 시청률 14% 이끌어

상호 감독이 각본을 쓴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로, 곽동연은 재난상황에 고립된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조장하며 폭력과 막말을 일삼는 절대적 악역을 연기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아직 20대 초반인데도 연기가 가볍지 않다”,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캐릭터” 등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드라마는 티빙의 상반기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 공개에 앞서 지난달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다. 하지만 작품은 “연상호의 자기복제”, “신선한 불교 스릴러”라는 엇갈리는 평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배우 곽동연(오른쪽). 사진제공 | 티빙

를 받고 있다. 곽동연에 대한 찬사가 더욱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배경이다. 드라마 공개에 앞서 지난달 말 티빙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선보인 그의 선 공개 영상이 최근 12만 뷰를 돌파한 것도 이 같은 호평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난해 최고 시청률 14%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은 tvN 드라마 ‘빈센조’ 속 악역 연기와의 결이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빈센조’에서 열등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착한 빌런’ 캐릭터를 선보인 것과 달리 ‘괴이’에서는 절대적 악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동연은 “재난상황에 극도의 폭력을 맘껏 휘두르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며 자신의 캐릭터를 소개했다. 이어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인 캐릭터를 상상하며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연기를 선보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출자 장건재 감독은 “작품의 긴장감이 곽동연을 통해 완성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승미 기자

## 안방극장은 ‘숏폼’ 실험중

한회차로 마무리...제작효율성 ‘굿’  
tvN ‘오프닝’ 파격 소재 10편 선배



‘숏폼’(Short Form) 형식 등 단막극이 안방극장의 새로운 ‘실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미니시리즈나 일일·주말극 등 ‘연속극’과 달리 한회차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작상 효율을 꾀할 수 있고,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는 등 새로운 시도에도 나설 수 있어 방송가가 주목한다.

tvN은 2일부터 ‘오프닝’(O’PENing)을 통해 극본 공모전 ‘오픈’의 당선작 10편을 ‘숏폼’ 시리즈로 선보인다. 2017년부터 방영해온 ‘드라마 스테이지’의 단막극 형태를 변주해 회당 30분 남짓의 영상을 2~4부로 모은다.

각 작품은 파격적인 소재를 내세운다. 공유오피스를 배경 삼은 ‘오피스에서 뭐하Share?’(오피서)는 20~30대의 연애 이야기를 ‘19금’ 수위로 과감하게 그린다. 이학주, 하윤경 등 신예들이 주연한다. 4부작 ‘XX+XY’는 남녀의 생식기관을 한 몸이 가진 고등학생이 자신의 성별을 직접 결정하는 이야기다. 무성애자, 동성애자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를 통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틀겠다는 기획이다.

감염병 시대의 풍경을 블랙코미디로 담아 류현경이 주연하는 ‘1당 당첨금 찾아가세요’, 주식 시장에 뛰어든 고교생의 이야기로 최근의 주식 열풍을 날 빠르게 풍자하는 ‘스톡 오브 하이스쿨’ 등도 촬영을 마쳤다.

KBS는 10월 방영을 목표로 새로운 ‘드라마 스페셜’ 제작에 착수했다. 지난해 단막극 극본 공모전 당선작을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 중이다. 아직 데뷔작을 만나지 못한 신인 연출자들도 대거 투입한다. 지난해 ‘희수’ 등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영화관에서 동시 공개하며 호평을 받은 KBS는 올해에도 포맷 변화 실험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 연예뉴스 HOT 3

### 이영애, 소아암 등 어린이 돕기 1억 기부

배우 이영애가 소아암이나 희소 질환으로 외출이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1일 엠블런스 소원재단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경기 양평재단 사무실을 찾아 대표 송길원 목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호스피스 환우나 말기 암 환자들의 ‘소원 들어주기’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다. 이영애는 “앞선 세대가 맘 흘려 우리가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보답해야 하지 않나”며 기부했다. 기부금은 어린 환우들을 위한 전용 엠블런스 마련에 나선다.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앨범 선주문 144만장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9일 발표하는 네 번째 미니 음반이 선주문량 144만 장을 넘겨 밀리언셀러를 예고했다. 1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미니음반 ‘미노스 2: 서스테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는 선주문량이 예약판매 6일 만에 81만6000장을 돌파했고, 15일 만에 144만7000장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정규 2집 선주문량 70만 장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소속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단일 음반 밀리언셀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화 ‘신비한 동물...’ 관객 100만명 돌파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신비한 동물사전3)이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두 번째로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겼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비한 동물사전3’은 전날 관객 8만4000여 명을 더해 누적 관객수 101만2000여 명을 기록했다. 앞서 한국 영화 ‘해적: 도깨비강탈’에 이어 올해 나온 영화 중 두 번째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해외 영화로는 처음이다.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 ‘신비한 동물사전’의 세 번째 이야기다.